

김영아 교수의 놀이로 脈 잡는 논술

03. 좋은 논술문의 요건

1. 내용영역과 논리영역

가. 내용 영역

① 문제의 핵심과 본질

* 문제의 파악-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논의해야 한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어진 제시문과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한다.

② 논의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

* 사실의 이해- 논의의 대상에 대하여 포괄적,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간의 전체의 종합적인 이해와 긴밀한 상호과정을 숙지한다.

③ 문제의 해결에 필요하고 적절한 절차

* 해결의 능력- 문제의 성격에 적절한 해결의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방법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④ 결론의 도출 과정이 타당성과 가치

* 논지의 적절성- 논술에 필요한 만큼의 창의성과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 보편성과 함께 전문성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논리 영역

① 논증에 쓰인 개념이나 판단이 일관성

* 논의의 일관성- 논증할 주제가 일관성 있게 서술되어야 한다.

② 논거의 확실성

* 논거 제시의 적합성- 논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논거들이 적절해야 한다.

㉠ 논거는 자명하거나 확실하여 승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논거는 결론의 옳음에 관련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논거는 결론의 옳음을 입증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

③ 논리적인 오류가 없어야 한다.

* 논증 방식의 타당성- 논증을 위한 추론 과정이 적절해야 한다.

2. 표현영역

① 어휘의 정확성과 풍부성

- * 사용된 어휘는 정확해야 한다.
- * 어휘가 문맥에 적절하며 풍부해야 한다.

② 문장의 정확성과 효율성

- * 어법과 표기법에 맞는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 * 문장은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에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③ 글의 단위성과 유기성

- * 개개의 단락은 응집성과 단위성을 갖추어야 한다.
- * 글 전체는 단계성과 유기성을 적절히 갖추어야 한다.

㉠ 하나의 단락은 의미적인 응집성이 있어야 한다.

㉡ 단락 간에는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문제를 제기하는 단락
- 문제를 해명하는 단락
- 문제의 해명을 구체화하는 단락
- 글을 마무리하는 단락

3. 논술의 주제 설정

① 문제 파악과 논술 주제의 설정 방법

- *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
- 문제 상황과 중심 물음이 무엇인지
- 논제에 덧붙여진 제한 조건이 무엇인지
- 중심 물음과 제한 조건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문제를 파악하여 논술 주제를 설정하는 구체적 과정

㉠ 논제 분석을 하여 무엇(논의의 대상)을 어떻게 하라(지시문의 서술어)는 것인지를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논제란 '논의해야 할 과제'로서 지시문에 나타난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부분을 가리킨다.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논제에는 참주제를 유도하는 논리 전개 의 방향이 나타나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 ㉡ 무엇을 설명하라는 형
- ㉢ 무엇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라는 형
- ㉣ 무엇의 원인이나 그 해결책을 논하라는 형
- ㉤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는 형
- ㉥ 문제 상황보다 더 나은 상태를 제시하라는 형

㉔ 논제를 이루는 핵심 개념의 의미는 무엇인지, 핵심 개념이 둘 이상이면 개념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논점을 구성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어디에 초점을 두어 논할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동문서답을 피할 수 있다.

㉕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면 자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핵심 내용과 논제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자료가 둘 이상 제시되면 그들 간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밝혀 논술의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

㉖ '유의 사항' 속에 논제를 풀어가는 방향이나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면 그 제한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㉗ 위의 과정을 거쳐 파악된 논술의 제한 조건(지시문, 자료, 유의 사항 속에 있는 모든 조건)을 반영하여 중심 물음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여러 견해를 검토한다. 여러 관점과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견해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가장 잘 아는 견해나 주장을 논술 주제로 확정한다.

㉘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자신의 견해나 주장, 그 이유나 근거 또는 조건이나 배경을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주제문을 작성한다. 주제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주제문 = 범위 한정 + 자신의 견해 + 그 근거나 조건

① 논제의 중심 물음과 논술 전개 방향 의 파악 → ② 논제의 핵심 개념과 논점 파악
→ ③ 자료의 핵심 내용 파악 → ④ 자료와 논제의 연관성 파악 → ⑤ 유의 사항의 조건과 논제의 연관성 파악 → ⑥ 중심 물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 주제로 설정함. → ⑦ 논의의 범위, 자신의 견해와 그 근거를 주제 문으로 작성함

◆ 보충 학습1

<‘대중문화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글쓰기 예>

그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에서는 대중 문화의 민주성과 그 한계를 논의하여 대중 문화의 부정적 역할의 논의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대중 문화의 상품성에서 비롯되는 대중 문화의 선정성·폭력성·저속성을, 셋째 단락에서는 대중 문화의 대량 소비로 인한 대중 의식의 단순화· 획일화를 논하면 되겠다.

이 내용을 세 단락의 본론으로 배치하고, 서론과 결론을 앞뒤에 제시한다면, 단락끼리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면서 결론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빠어난 논술문은 알찬 내용을 논리에 맞추어 정확하게 표현한 글이다. 논술은 구상에서부터 완결된 글을 마칠 때까지 쓸 거리를 준비하고, 이를 조직하여 표현하고, 다시 이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고쳐 쓰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거듭되는 과정에서 좀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좋은 논술의 조건'을 논술의 지침으로 삼으면 훨씬 더 그 과정이 단축되고 더 좋은 논술문을 쓸 수 있을 것이다.

♣ 보충 학습2

<논술 주제를 잘못 설정한 이유>

①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자신의 선입견이나 희망 사항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오로지 해결해야 할 과제만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하더라도, 문제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미 연습해 보고 외워둔 논술 문제의 답안과 비슷하게 썼기 때문이다. 같은 문제가 출제되지도 않으려니와, 설정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묻는 각도에 따라 논술 답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물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여 거기에 논술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논술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논술 주제를 설정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한다.